14. 공경

열네 번째는 공경을 돈독히 함이니, 배우는 자가 덕에 나아가서 학업을 닦는 것은 오직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있다.

공경하기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단지 빈말일 뿐이다. 반드시 표리[23]가 하나같고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 말에는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나 숨 한 번 쉬는 동안에도 본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름에 있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더라도 그 효과는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실학[24]이다.

만일 이것은 힘쓰지 않고 다만 해박한 것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꾸미는 도구로 삼는 자는 선비의 적이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

23 표리(表裏) : 겉과 속

24 실학(實學) : 실제의 학문, 진실한 학문

해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식욕이나 성욕과 더불어 인정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인정 욕구가 사회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력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칭찬의 놀라운 효력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멋진 말입니다. 고래가 자아의식이 있어서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조련사가 칭찬으로 던져주는 먹이와 기분 좋은 스킨십을 좋아할 뿐이지만요.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어려운 말로 인정 투쟁이라고 합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탄생, 그 관계의 역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설정이 인정 투쟁입니다.

고의로 남을 추켜 세우는 것을 '비행기를 태우다'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높은 모자를 쓰다는 따이까오마오즈(戴高帽子)라고 합니다. 이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직으로 나가게 되어 작별인사를 하러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외지에서 벼슬살이는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언합니다. 제자가 백 개의 높은 모자를 준비했

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개씩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스승이 충직하게 사람을 대해야지 무슨 아첨을 하느냐며 버럭 화를 냅니다. 제자가 세상에는 스승님처럼 높은 모자를 씌워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승과 작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백 개의 모자 중에서 이제 구십구 개가 남았다.'

자장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답합니다.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지만,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고을과 마을에서라도 행해질 수 있겠는가?"(『논어』 15:5)

공자 말대로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이 진실하고 신뢰가 가며 그 행동이 돈독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진실하고 경건하게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경(敬) 한자를 한국어로 풀이한 말입니다. 경의 기본 뜻은 공경하다입니다. 공경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자.' '도공들은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당에 쓸 기와를 구웠다.' 등

으로 사용합니다.

경은 오늘날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통용됩니다. 예컨대 경건하다, 경애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경로사상, 경천사상 등으로 사용합니다.

기본 뜻 공경하다는 활용에 따라 의미가 확대됩니다. 『논어』의 용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어른, 부모님, 귀신 등을 받들어 섬기다'입니다. 어른, 부모님, 귀신 등은 공경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높거나 신령한 존재입니다. 정성을 다해 자신보다 고귀하거나 신령한 존재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효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와 말도 모두 길러주는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논어』 2:7) 부모님 몸을 잘 봉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섬길 때에는 가만히 간해야 하니, 뜻을 따라주지 않더라도 또한 공경해서 어기지 아니하며 수고를 하여도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논어』 4:18)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대신 수고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에게 올바른 것을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논어』 6:20) 귀신은 길흉화복을 주관합니다. 귀신을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귀신에 전적으로 위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나 웃어른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는 몸가짐을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공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윗자리에 거처하여 너그럽지 않으며, 예를 실천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며 상사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보겠는가?"(『논어』 3:26) 예는 규범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거지를 통해서 예는 표현됩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강합니다. 마음으로 내면에서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의절차가 허례가 되지 않습니다.

『예기』에서 예(禮)의 본질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예라는 글자는 원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양을 본뜻 글자입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귀신의 보살핌을 바라는 제사는 엄숙하고 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귀신을 감동시켜 제사의 목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는 예의 정신이 공경입니다. 정이가 외모를 단정히 하여 마음을 집중시키는 정제엄숙(整齊嚴肅)을 공경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안연에게 극기복례 공부법으로 알려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예가 아니면 듣지 않고, 예가 아니면 말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제엄숙과 연결됩니다.

웃어른이나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공경의 마음을 일을 하는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경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근래에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있지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지은 책으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몰입의 심리 현상을 행복을 위한 매개로 제시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심리학이 잘 녹아있는 책이지요. 이 몰입은 한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분산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경건하게 하고 미덥게 하며, 쓰는 것을 절약하고 남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때에 맞게 해야 한다."(『논어』 1:5)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경건히 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논어』 13:19) 등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일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집중과 관련하여 불교의 선사들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경우를 많이 예로 듭니다. 어릴 적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면 전신을 곧추세워 부풀리고 등은 활

처럼 휘어집니다. 온몸의 털은 공중으로 솟아납니다.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전방의 표적을 응시합니다. 쥐가 조금만 방향을 틀면 캬~악 소리와 함께 달려들어 순식간에 앞발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집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온 정신을 집중하듯이 한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일에 몰입하는 것을 정이는 한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분산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표현했습니다.

공경의 자세는 일 하나를 할 때에도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공경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정이의 표현을 따르자면 주일무적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표현대로 몰입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공경함에 거하고 간략함을 행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면 또한 괜찮지 않습니까? 간략함에 거하고 간략함을 행하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닙니까?"(『논어』 6:1) 공경함에 거한다는 말은 일상을 공경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으로 몸을 닦는 것이다"(『논어』 14:45)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마음을 닦는 데에는 공경이 최고입니다. 어른과 부모님을 섬길 때, 자신의 행동거지를 단속할 때, 일을 처리할 때 모두 공경하게 해야 합니다.

정이가 공부와 관련하여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함양

함에는 반드시 공경을 쓸 것이며, 학문 정진은 앎을 지극히 하는 치지에 있다.'

『주역』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구분하여 수양 공부를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군자는 공경으로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 외면을 방정히 하여 공경과 의로움이 확립되면 덕은 외롭지 아니하다."

공경은 내면 공부를 하는데, 의로움은 외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공경은 행동 전의 마음 자세를 바로 잡는데, 의로움은 그 행동이 정의롭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경을 통해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행동은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로우면 방정한 행위입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행위가 의로우면 군자가 됩니다.

정이의 제자인 사량좌가 공경을 항상 깨어있다는 상성성(常惺惺)이라고 했습니다. 윤돈은 마음을 수렴하여 그러한 마음 상태와 이질적인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자는 경 공부는 성인이 되는 학문에서 첫째가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수양은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몸은 행동을 담당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느낍니다. 마음은 그 몸을 주관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봐도 뭘 봤는지 모르고,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다른 것에 팔렸을 때입니다.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상성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근신, 집중, 정성 등 공경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율곡은 공경하기를 돈독히 해서 반드시 표리가 하나같고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리가 하나이고 그침이 없는 상태 역시 공경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율곡이 말합니다. "그 말에는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나 숨 한 번 쉬는 동안에도 본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름에 있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더라도 그 효과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그만둡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進德修業, 惟在篤敬.
학 자 진 덕 수 업 유 재 독 경

不篤於敬, 則只是空言, 須是表裏如一, 無所間斷.
불 독 어 경 칙 지 시 공 언 수 시 표 리 여 일 무 소 간 단

言有敎, 動有法, 晝有爲, 宵有得, 瞬有存, 息有養.
언 유 교 동 유 법 주 유 위 소 유 득 순 유 존 식 유 양

用功雖久, 莫求見效. 惟日孜孜, 死而後已, 是乃實學.
용 공 수 구 막 구 견 효 유 일 자 자 사 이 후 이 시 내 실 학

배우는 자가 덕에 나아가서 학업을 닦는 것은 오직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있다. 공경하기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다만 빈말일 뿐이다. 반드시 표리가 하나같고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 말에는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나 숨 한 번 쉬는 동안에도 본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름에 있어서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더라도 그 효과는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실학이다.

進德: 덕에 나아가다/修業: 학업을 닦다/惟: 오직/在: ~에 있다/篤敬: 공경을 독실하게 하다/不篤: 독실하게 하지 않다/於: ~에/敬: 공경하다/則: ~면/只是: 단지 ~이다/空言: 빈 말/須是: 모름지기 ~해야 한다/表裏: 겉과 속, 안과 밖/如一: 하나다, 한결같다/無: 없어야 한다/少: 조금이라도/間斷: 중단하다/言有敎: 말에는 교훈이 있다/動有法: 움직임은 법도가 있다/晝有爲: 낮에는 활동한다/宵有得: 밤에는 얻음이 있다/瞬: 눈을 깜박거리다/存: 보존

하다/息: 숨을 들이고 내쉬다/養: 기르다/用功: 공부를 하다/雖: 비록/久: 오래되다/莫: ~하지 말라/求: 구하다/見效: 효과를 보다/日: 날마다/孜孜: 부지런히 노력하다/死而後已: 죽은 후에 그만두다/是乃: 이것이 ~이다/實學: 실질의 학문

若不務此, 而只以辨博說話, 爲文身之具者,
약 불 무 차 이 지 이 변 박 설 화 위 문 신 지 구 자

是儒之賊也. 豈不可懼哉.
시 유 지 적 야 기 부 가 구 재

만일 이것은 힘쓰지 않고 다만 해박한 것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꾸미는 도구로 삼는 자는 선비의 적이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若: 만약/不務: 힘쓰지 않다/此: 이것/只: 다만/以: ~써, 以~爲: ~써 ~을 삼다/辨博: 해박하게 변론하다/說話: 말하다/文身: 자신을 꾸미다/具: 도구/者: 사람/是: 이것은/儒: 유자/賊: 도적/豈: 어찌, 豈~哉: 어찌 ~하겠는가/不可: ~하지 않다/懼: 두렵다